

朝鮮朝 한글活字 版本을 통해 본 活字鑄造法の 技術的 發展에 관한 考察*

The Technical Development of Casting Hangeul Movable Types
in Hangeul Movable Printing Editions in the Jeseon Period

姜 順 愛(Kang, Soon-Ae)**

◁ 목 차 ▷

1. 序 論	3.1 동활자 주조법 및 조판기술
2. 朝鮮朝 한글活字 版本의 개관	3.2 목활자 주조법
2.1 壬辰倭亂 이전 版本	4. 현존 한글活字와 터널형 한글活字의 활용
2.2 壬辰倭亂 이후 版本	5. 結 論
3. 한글 활자 주조법의 기술적 발전	<참고문헌>

< 초 록 >

본 연구는 朝鮮朝 한글活字 版本을 통해 본 活字鑄造法の 技術的 發展에 관한 考察을 다루기 위해 朝鮮朝 한글活字 版本의 개관, 한글活字 鑄造法の 技術的 發展, 현존 한글活字와 터널형 한글活字의 활용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다.

조선조 한글활자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 많은 판본에 한문활자와 병용되면서 사용되고 발전되었다. 조선조 한글활자의 명칭, 판본, 종류 및 모양이 임진왜란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연구되었고, 중요한 판본의 도판이 수록되었다. 활자주조법의 기술적 발전은 初鑄甲寅字 병용 한글字的 四隅平正형과 조립식 조판법, 乙亥字 병용 한글字를 바탕으로 재주한 경서한글자에서 일부 시도된 썬기형(역 V자형), 임진왜란 이후의 再鑄整理字 병용 한글字에서 시도된 터널형의 동활자에 대해 고찰하였다. 특히 터널형의 활자는 戊申字 병용 한글字에 응용되었지만 그 이후에 사용되지 않다가 再鑄整理字 병용 한글字에 와서 일반화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남아 있는 한글 활자는 750여자이다. 그중 30자는 을해자 병용 한글 활자를 바탕으로 재주한 經書한글자로 여겨지고, 남은 720여 활자의 대부분은 무신자 병용 한글활자로 확인되었다. 무신자 병용 한글활자는 임진왜란 이전에 주조된 한글활자와는 달리 활자 뒷면이 터널형으로 되어 있다. 이 터널형 활자는 실험에 실패하여 조선조 후기에 인출된 판본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였다. 그 주성방법과 기술은 조선조 후기의 임진자와 정유자를 비롯한 여러 한문활자

* 본 연구는 2008년도 한성대학교 교내특별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

**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교수(h4085@hansung.ac.kr)

접수일: 2008년 5월 13일 최초심사일: 2008년 5월 20일 심사완료일: 2008년 6월 23일

에 응용되었고, 한글활자에서는 재주정리자 병용 한글자에 활용된 것임을 밝혔다. 본 연구의 결과는 조선 한글활자 전반의 기초적인 연구 및 후속 실험 연구의 근간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要語 : 한글활자, 한글활자 판본, 한글활자 구조법

<ABSTRACT>

In this research, to investigate the technical development of casting Hangeul movable types in Hangeul movable printing editions in the Joseon Period, analyzed are: i) the Hangeul movable printing books in the Joseon period; ii) the technical development of casting Hangeul movable types; and iii) the existing Hangeul movable types and use of tunnel-shaped Hangeul movable types.

Since the invention of the Korean script, that is, Hunminjeongeum, the Hangeul movable types were used and developed in combination with the Chinese characters movable types. In this research, the names, printing editions, kinds and shapes of the Hangeul movable types were examined for the periods before and after Imjin Waeran, and some important illustrations of the books printed in those movable types were included.

To discuss the development of casting techniques, the four straight corners of 'Hangeul metal movable type used in combination with the First-cast Gabin-ja types', and the technique of prefabricated typesetting were examined. Also, studied were 'Hangeul metal movable type used in combination with the Second-cast Gyongseo-ja types' which partly tried the wedge-shaped back(that is, the shape of an upside-down V) and the tunnel-shaped 'Hangeul metal movable type used in combination with the Second-cast Jeongli-ja types' after Imjin Waeran. It is assumed that these tunnel-shaped movable types were used for Hangeul types in combination with the Musin-ja types, but since then not used, and later became popular with Hangeul types in combination with the Jaeju Jeongli-ja types.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has approximately 750 Hangeul movable types. About 30 of them are confirmed to be the Kyongseo-Hangeul-ja types recast on the base of Hangeul types in combination with Ulhae-ja types. And the rest were confirmed to be mostly Hangeul types used in combination with the Musin-ja types which had the tunnel-shaped back, different from Hangeul types cast before Imjin Waeran. They, however, failed in test so as not to be generally used for printing books in the late Joseon Period. The method and technique of casting tunnel-shaped metal types were applied to cast various Chinese characters metal types, including Imjin-ja, Jeongyu-ja and 'Hangeul metal movable type used in combination with the Jaeju Jeongli-ja types.'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from this research could be used for conducting further new and experimental studies of Hangeul movable types cast and used in the Joseon Period.

Key words : Hangeul Movable types, Hangeul Movable Printing Editions,
Casting Hangeul Movable Types

1. 序 論

조선조 한글 활자는 한문 활자와 함께 사용되면서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한글 활자의 연구는 한문 활자에 비해 본격화 되질 않았고, 그에 대한 연구서나 논문도 거의 전무한 편에 속한다.

최근에 국립중앙도서관이 한글금속활자를 공개하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현재 남아있는 한글활자중 금속제 언문자대자로 알려진 활자 232자, 금속제 언문자소자로 명명된 활자 520자로 총 752자를 조사하여 자료집으로 출간하였고,¹⁾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한글 금속활자의 특징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한글금속활자의 과학적 분석에 대한 2편의 논고가 수록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자료집에는 한글금속활자의 도판을 수록하였고, 활자의 구조와 조관에 대해 수록하였으며, 한글금속활자로 찍은 책을 수록해 놓았다. 한글금속활자로 찍은 판본으로는 을해자본, 무신자본, 임진자본, 정유자본의 실례가 실려 있는데, 그중 무신자본, 임진자본, 정유자본의 한글 활자는 모두 동활자가 아닌 목활자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의 보고서에 의거하여 한글 활자의 실험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그 발표 논문 및 결과보고서도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²⁾ 즉 숙종 19년(1693)에 인출한 「주역언해」를 한글활자 복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여기에 사용된 한글활자는 동활자가 아니고 목활자이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이 「금속활자를 담은 빛나는 한글」을 출판하였는데,³⁾ 기존의 연구결과가 그대로 답습되었고 시정된 것은 없었다.

이러한 방법론이 계속해서 답습되는 것은 한글 활자 판본에 대한 문헌사적 연구가 뒷바침되지 않고, 현존하는 활자에만 단편적으로 의존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서 오는 문제점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필자는 조선조 한글활자의 판본

1) 국립중앙박물관, “한글금속활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역사자료총서 IV」, 2006.
2) 옥영경, “한글 금속활자 복원을 위한 구조 및 조관 실험 연구,” 「서지학연구」 제38집(2007. 12), 347-376.; 청주고인쇄박물관, 甲寅字와 한글활자, 2007 조선왕실 구조 금속활자 복원 사업 결과보고서, 678.
3) 국립중앙박물관, 「금속활자에 담은 빛나는 한글」(2008), 59.

을 개관하고, 이를 통해 한글활자구조법의 기술적인 발전과 연계하여 살펴봄, 현존 한글활자와 터널형 한글활자의 활용의 순서로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조선 한글활자 전반의 기초적인 연구 및 후속 실험 연구의 근간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 朝鮮朝 한글活字 版本의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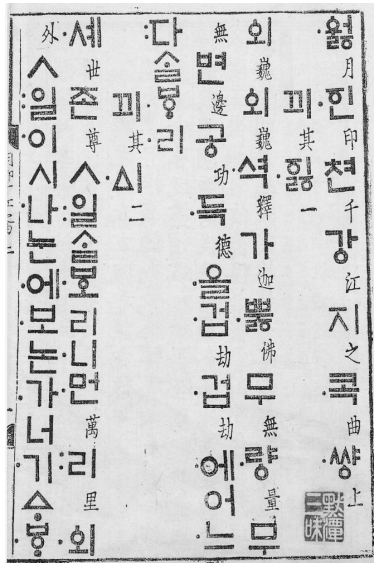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한글활자본은 세종대왕이 동왕 25년(1443) 12월에 제정해서 동왕 28년(1446) 10월에 반포한 훈민정음의 목판본에서 그 원형을 볼 수 있다. 그 후 글자체의 변화가 오면서 동활자와 목활자를 만들어 한문활자에 병용되어 사용되었는데 이들 한글활자가 사용된 판본을 임진왜란 이전 판본과 임진왜란 이후 판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⁴⁾

2.1 壬辰倭亂 이전 版本

2.2.1 初鑄甲寅字 병용 한글字本

世宗 28년(1447)에 승하한 昭憲王后의 명복을 빌기 위해 엮은 국역본 「釋譜詳節」과 그것을 보고 세종이 지으신 「月印千江之曲」을 찍기 위해 세종 29년(1448) 무렵에 한글활자를 만들었다. 이는 세종 16년(1434)에 주조한 초주갑인자와 병용 한글자로 찍은 것인데 그중 한글활자는 모음자의 좌우와 위아래로 그은 획이 짧은 線畫으로 된 印書體활자이다. 한글활자의 글자모양이 균정하고 등근 획의 모양이 가지런하며 동일글자가 어느 것이나 같아서 동활자로 여겨지는 활자이다 (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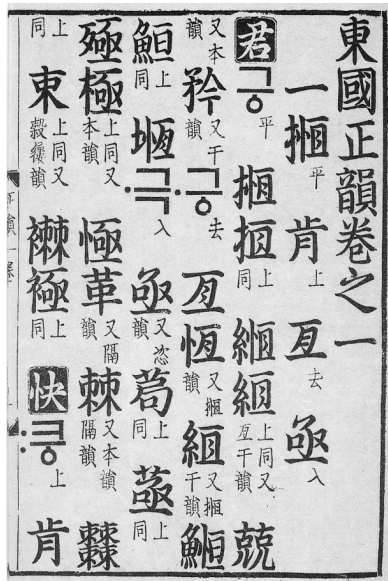
4) 여기서 사용하는 활자의 명칭, 계보 및 활자의 일부 설명은 千惠鳳, 「한국서지학」(서울: 민음사, 2006), 1-676을 참조하여 이루어졌음을 밝혀둔다.



<그림 1> 세종 29년(1447) 초주갑인자와 병용 한글자 「月印千江之曲」 卷上
(자료 : 전해봉, 「한국금속활자본」, 1993. 52)

2.2.2 東國正韻 한글字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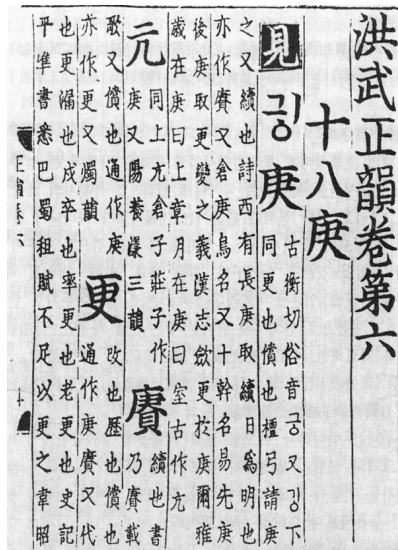
세종이 명나라의 「洪武正韻」을 보고 우리나라 한자음을 바로잡기 위해 신숙주 등으로 하여금 「東國正韻」을 편찬하게 한 것으로 세종 29년(1447) 9월에 편찬을 완료하고, 世宗 30년(1448)에 인출하여 각 도를 비롯한 성균관, 사부학당에 반사한 것이다. 이 책을 인출하는 데 사용된 활자는 나무활자중 한자 큰자는 진양대군 유의 글씨체로 여겨지는 東國正韻字이고, 한글 큰자를 찍은 활자는 동국정운한글자이며 서문의 큰 자와 운을 단 작은 활자는 초주갑인자이다. 이때 사용된 동국정운자 병용 한글자는 강직한 선획을 그어 결구한 고딕 인서체이고, 모음자의 상하에 그은 圈畫 등이 「훈민정음해례 의 원형을 잘 나타내 준다 (그림 2 참조).



<그림 2> 세종 29년(1447) 동국정운 한글자 「東國正韻」 卷1
(자료 : 천혜봉, 「한국목활자본」, 1993. 21)

2.2.3 洪武正韻字 한글字本

세종은 「東國正韻」에 이어 한자의 중국음을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명에서 새로 엮은 「洪武正韻」의 음을 한글로 표기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 중국음의 연구는 단종 3년(1455)에 완성되어 「洪武正韻」의 서명으로 인출되었다. 이 책을 인쇄하는데 쓰인 나무활자중 한자 큰자는 洪武正韻字이고, 한글 큰자와 작은자는 홍무정운한글자이며 한자의 작은 활자는 초주갑인자이다. 홍무정운자의 한자 큰자는 동국정운자와 유사하고, 한글자는 큰자와 작은자가 모두 강직한 선획으로 결구된 인쇄체가 아니라 부드러운 필서체의 선획으로 바뀐 것이 특징이다 (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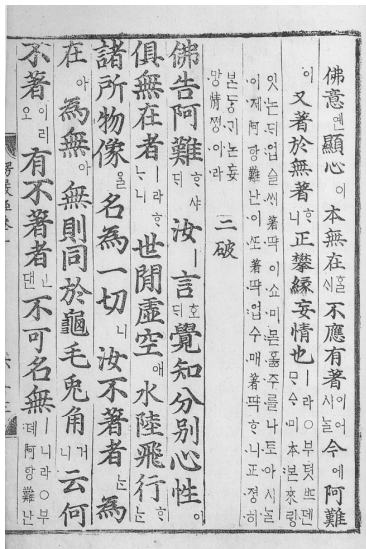
<그림 3> 단종 3년(1445) 홍무정운자 한글자 갑인소자 「洪武正韻」 卷6
(자료 : 전해봉, 「한국서지학」, 2006. 423)

2.2.4 乙亥字 병용 한글字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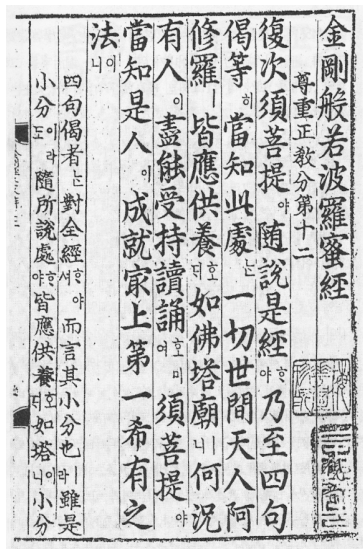
세조 원년(1455)에 강희안의 글씨체를 자본으로 하여 만든 동활자가 을해자이다. 한문의 대·중·소자를 만들 때에 한글활자를 다량으로 주성하여 불서를 인출하는데 사용되었다.

우선, 세조 7년(1461)에 「楞嚴經諺解」를 인출하면서 한문의 대·중·소자와 한글소자를 병용하여 찍었다. 이때 주조한 한글활자는 세조 원년(1465)에 주성한 을해자가 아니므로 ‘을해자 병용 한글자본’으로 일컬어야 하고 「楞嚴經諺解」에 처음 쓰여서 ‘능엄 한글자’로 일컬을 수 있다. 이들 글자체가 초기의 강직한 인서체에서 부드러운 필서체로 옮겨가는 특징을 보여준다. 또 다른 인출본중 「周易傳義」는 世祖 원년(1455)에 주조한 乙亥字 大·中字에 세조 7년(1461)에 주조한 한글 小字로 토를 달았다. 乙亥字에 약간의 補字가 혼용되었으나 전체가 정교한 점으로 미루어 세조연간의 印出본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杜詩諺解」는 成宗 12년(1481)에 世祖 1년(1455) 주조한 乙亥字의 中·小字와 世조 7년(1461)에 주조한 한글활자로 인출하였다. 成宗 13년(1481)에 인출한 「金剛經三家解」는 治父와 宗鏡의 주석에 우리나라 得通의 說義 및 決議를 합친 국역해이다. 正희왕후가 學祖를 시켜 300부를 인출한 것이다. 世祖 3년(1457) 주조의 丁丑字(큰자)와 世조 1년(1455) 주조의 乙亥字 中·小字 그리고 世조 7년(1461)에 「楞嚴經諺解」를 찍기 위해 주조한 을해자 병용 한글자로 인출한 것이다(그림 4 참조). 「金剛般若波羅密經」(三家解)는 成宗 13년(1482)에 世조 3년(1467)에 주조한 정축자와 을해자 및 「楞嚴經諺解」를 찍기 위해 주조한 을해자 병용 한글자로 인출한 것이다(그림 5 참조). 「靈驗略抄」는 成宗 16년(1485)에 仁粹大妃의 명으로 學祖가 世祖 7년(1461)에 주조한 乙亥字 병용 한글자와 乙亥字 小字로 인출하였고, 卷末에는 「五大眞言集」이 木板本으로 첨부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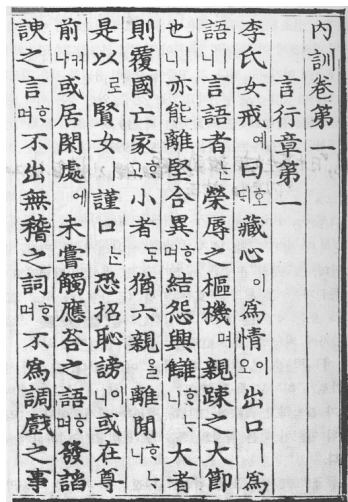


<그림 4> 세조 원년(1455) 을해자 큰자·중간자·작은자 병용 한글자 「楞嚴經諺解」(자료: 천혜봉, 「한국금속활자본」, 1993. 80)



<그림 5> 成宗 13년(1482) 정축자와 을해중간자 병용 한글자 「金剛般若波羅密經」(자료: 천혜봉, 「한국서지학」, 2006. 3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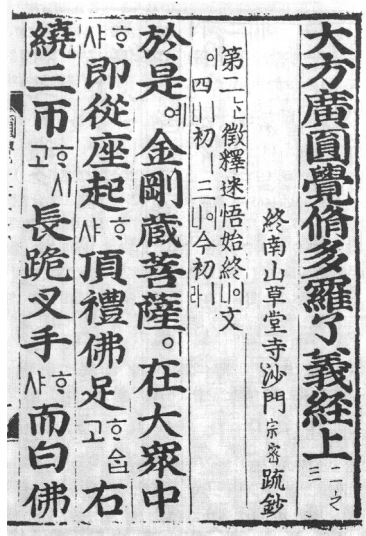
을해자 병용 한글소자이외에 대자를 목활자로 만들어서 사용하였는데, 「簡易辟瘟方」은 中宗 36년(1541) 11월에 世祖 1년(1455)에 주조한 乙亥字의 中·小字와 世祖 7년(1461)에 주조한 乙亥字並用한글小字 그리고 한글 大字를 나무로 만들어 찍었다. 한글小字는 종전의 동활자이나, 한글大字는 여기서 처음으로 보이는 木活字이다. 그 중 가장 많은 ‘한’의 글자를 종전의 것과 대조하여 보면 곧 차이가 들어난다. 「內訓」 3권 3책본은 宣祖 6년(1573) 2월에 마멸된 乙亥字混入補字와 世祖 7년(1461)에 주조한 乙亥字並用한글小字 그리고 한글大字는 中宗 36년(1541)에 찍은 「簡易辟瘟方」에 썼던 多混補字木活字를 사용하여 찍었다. 이 책은 인쇄가 不精하고 오탈자가 있어 校書館 提調 柳希春이 그해 7월에 마멸된 乙亥字를 다시 補鑄하여 11월에 마치고 그해 12월에 다시 찍어 3권4책으로 粧冊하여 올린 것 중 沈忠謙에 內賜한 것이다. 마멸된 乙亥字가 補鑄이고, 한글大小字도 補刻 대체하여 인쇄가 사뭇 정교하다(그림 6 참조). 「朱子增損呂氏鄉約」은 校書館 提調 柳希春이 다시 校正을 가하여 宣祖 7년(1574)에 인출한 것인데 한글활자는 內訓을 찍은 것을 사용하고 不定字를 나무로 補字 印行하였다. 그 補字는 거친 편이다.



<그림 6> 선조 6년(1573) 을해자와 보주 을해자 「內訓」
(자료 : 천혜봉, 「한국서지학」. 2006. 338)

2.2.5 乙酉 한글字本

乙酉字는 世祖 11년(1465)에 鄭蘭宗의 글씨를 자본으로 주조한 乙酉字의 大·中·小字이다. 같은 해에 원각사를 준공하고 「圓覺經」을 을유자로 찍어 탑에 봉안하였는데 이 책에 구결을 달기 위해 한글활자를 주성하였다. 이 활자는 을유년에 조성되어 을유 한글자로 명명해야 하고 이 한글활자의 글자체는 刊經都監 諺解本の 영향을 받아 세필 印書體化된 것이 특징이다(그림 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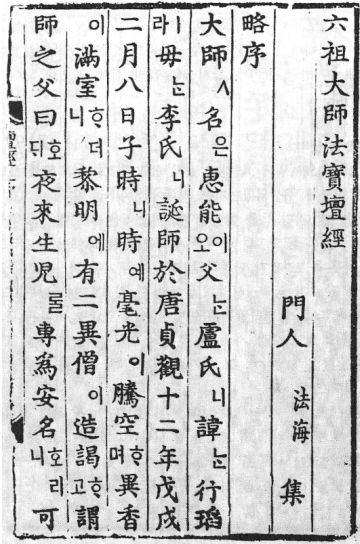


<그림 7> 세조 11년(1465) 을유자와 그 한글자 「圓覺經」
(자료 : 천혜봉, 「한국서지학」, 2006. 545)

2.2.6 印經 한글字本

印經字는 연산군 1년(1496)에 승하한 성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인수대비와 성종의 계비인 貞顯王后가 원각사에서 「國譯法華經」 등 8종 650부를 찍어내고 각 책에 같은 내용의 발문을 붙이기 위해 주성된 목활자이다. 이듬해인 연산군

2년(1496)에 貞顯王后가 仁粹大妃와 더불어 內帑으로 印經字를 더 만들어 「天地冥陽水陸雜文」을 인출하였고, 이어 「六祖法寶壇經」(그림 8 참조)과 「眞言勸供」을 국여하게 하고 印經字와 그 한글자를 만들어 앞의 책은 300부, 뒤의 책은 400부를 인출하였다. 이 印經 한글字本의 글자체는 字畫의 시작과 끝에 印書體에서 筆書體로 옮겨가는 특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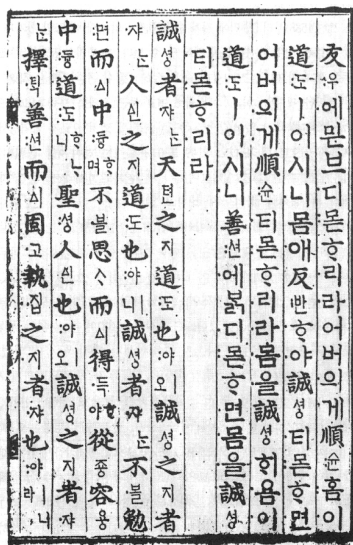


<그림 8> 연산군 2년(1496) 인경자와 그 한글자 「六祖法寶壇經」
(자료 : 천혜봉, 「한국서지학」, 2006. 546)

2.2.7 經書 한글字本

經書字의 주성연대는 정확하게 밝히기 어렵다. 다만 「小學諺解」 권말에 붙인 李山海의 발문에 의거하면, 宣祖 18년(1585)에 교정청을 설치하고 「소학」의 舊本을 바로 잡고 번잡한 것을 줄여 번역을 하였다. 이듬해인 선조 19년(1586)에 정서하여 교서관에 내려 수백부를 찍도록 하고 발문을 붙인 것이 선조 20년(1587) 4월이었다. 이어 「四書」과 「孝經」 등이 번역·교정되어 宣祖 23년(1590)

까지 인쇄하여 내사되었다. 이 활자는 을해자와 닮게 만들면서도 특징있게 개주하여 경서자 또는 을해자체경서자라 하고 이를 주성하면서 함께 만든 한글자는 經書 한글字라 일컫는다. 경서자의 주조당시 宣祖 6년(1573) 「內訓」을 重印할 때 改鑄하지 않은 것을 모두 완전히 改鑄하였는데, 종래의 圓筆인 姜希顔書體에서 벗어나 글자획이 가늘고 힘이 예리한 楷書體로 改變하였으며 한글활자에 있어서도 小字를 적지 않게 改鑄하였는데, 종래 획의 시작에 힘을 가한 筆力이 直線化된 印書體로 바뀌어졌다. 그리고 大字는 종래 筆書體 대로 補刻하여 대체하였음이 역력히 들어난다. 이와 같은 것으로 「孟子諺解」와 「大學諺解」 및 「中庸諺解」(그림 9 참조)가 있다.



<그림 9> 선조 21년(1588) 을해자체 경서자와 그 한글자 「中庸諺解」
(자료 : 천혜봉, 「한국서지학」. 2006. 548)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여 임진왜란 이전의 한글활자명, 한글활자 판본, 한글활자 종류, 한글활자 모양을 임란이전 판본을 <표 1>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朝鮮朝 한글活字 版本을 통해 본 活字鑄造法의 技術的 發展에 관한 考察

<표 1> 임진왜란 이전 한글활자명, 한글활자 판본, 한글활자 종류, 한글활자 모양

한글활자명	한글활자 판본 (간행연도)	한글활자 종류 (동활자/목활자)	한글활자 모양
初鑄甲寅字 병용 한글자	「月印千江之曲」 (세조 28년(1447))	한글 대자 (동활자)	선풍이 가는 印書體
東國正韻 한글자	「東國正韻」 (세조 30년(1448))	한글 대자 (목활자)	강직한 선풍의 고딕 印書體
洪武正韻字 한글자	「洪武正韻」 (단종 3년(1455))	한글 대자 및 소자 (목활자)	부드러운 필서체
乙亥字 병용 한글자	「楞嚴經諺解」 (세조 7년(1461))	한글 소자 (동활자)	부드러운 필서체
乙亥字 병용 한글자	「周易傳義」 (세조 연간(1455~1468))	한글 소자 (동활자)	부드러운 필서체
乙亥字 병용 한글자	「杜詩諺解」 (성종 12년(1460))	한글 소자 (동활자)	부드러운 필서체
乙亥字 병용 한글자	「金剛經三家解」 (성종 13년(1461))	한글 소자 (동활자)	부드러운 필서체
乙亥字 병용 한글자	「靈驗略抄」 (성종 13년(1461))	한글 소자 (동활자)	부드러운 필서체
乙亥字 병용 한글자	「簡易辟瘟方」 (중종 36년(1541))	한글 대자 및 소자 (대자:목활자/ 소자: 동활자혼입보자)	부드러운 필서체
乙亥字 병용 한글자	「內訓 3권3책」 (선조 6년(1573) 2월)	한글 대자 및 소자 (대자:목활자/ 소자: 동활자혼입보자)	부드러운 필서체
乙亥字 병용 한글자	「內訓 3권3책」 (선조 6년(1573) 7월)	한글 대자 및 소자 (대자:목활자/ 소자: 동활자혼입보자)	부드러운 필서체
乙亥字 병용 한글자	「朱子增損呂氏鄉約」 (선조 7년(1574))	한글 대자 및 소자 (대자:목활자/ 소자: 동활자혼입보자)	부드러운 필서체
乙酉 한글자	「圓覺經」 (세조 11년(1465))	한글 소자 (동활자)	세필 인서체
印經 한글자	「國譯法華經」 (연산군 1년(1496))	한글 소자 (목활자)	필서체
印經 한글자	「天地冥陽水陸雜文」 (연산군 2년(1497))	한글 소자 (목활자)	필서체
印經 한글자	「六祖法寶壇經」 (연산군2년(1497))	한글 소자 (목활자)	필서체
印經 한글자	「眞言勸供」 (연산군 2년(1497))	한글 소자 (목활자)	필서체
經書 한글자	「孟子諺解」, 「大學諺解」, 「中庸諺解」 (선조 21년(1588))	한글 중간자 및 소자 (동활자(목활자보자))	단정한 필서체

2.2.2 戊申字 병용 한글字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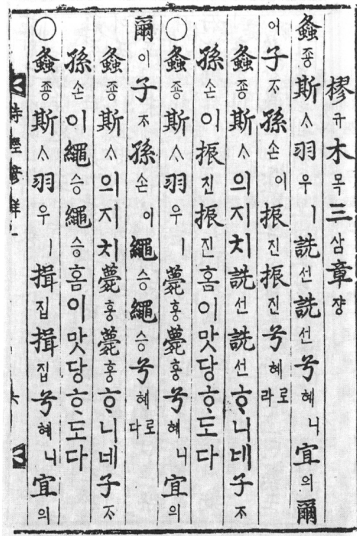
戊申字는 호조판서와 병조판서의 자리에 있으면서 수어사를 겸했던 김좌명이 현종 9년(1663)에 호조 및 병조의 물자와 인력을 이용하여 수어청에서 큰활자 66,100여자와 작은 활자 46,000여자를 주성하여 동왕 11년(1670) 무렵에 김육의 「潛谷先生遺稿」를 간행하였다. 동왕 12년(1671)에 그가 죽은 뒤 무신자활자는 교서관으로 옮겼다. 초기 인본은 굵은 3엽화문어미에 활자가 정교하고 인쇄가 매우 깨끗하다. 후기의 인본들은 내향 2엽화문어미에 마멸된 활자와 목활자의 보수가 많아진다. 한글활자는 목활자로 만들어 무신자와 함께 사용되었는데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없다. 글자체는 인서체에서 필서체로 바뀌는 단계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한글활자가 들어있는 판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老乞大諺解」는 同書同版本의 李敦柱 所藏本에 肅宗 1년(1675) 정월의 內賜記가 있다. 그 전년도인 顯宗 15년(1674) 후기에 戊申字와 한글활자를 만들어 찍어냈다. 특수한 주음을 표시하기위해 司譯院에서 목활자를 만들어 찍어낸 것으로 보인다.

「捷解新語」는 肅宗 2년(1676)에 주조한 丙辰倭諺字와 戊申小字 그리고 戊申字並用한글小字로 인출하였는데 특수 한글자 小字는 補刻하여 充用하였다.

「大學諺解」에는 康熙三十四年(肅宗 21, 1695)로 3월 17일의 內賜記가 있다. 戊申字는 조금 해가 오래되어 획이 가늘게 되고 補字가 混入되어 있다. 한글활자 중 小字는 肅宗 2년(1676) 印出의 「捷解新語」에 쓰인 한글小字와 같은 계열의 것이고, 大字는 여기에 처음 나타나는 글자체의 나무활자이다. 이와 같은 계열의 「詩經諺解」에는 康熙四十三年(肅宗 30년, 1704)의 內賜記가 있다(그림 11 참조). 「大學諺解」는 같은 계열의 판본이지만 10년후에 印出하여 戊申字는 물론 한글大小字에 補字가 混入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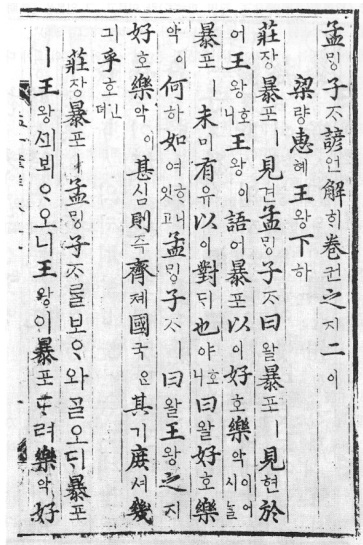
「大學栗谷先生諺解」는 英祖 25년(1749)에 洪啓禧가 芸館의 戊申字와 並用한글자로 찍어낸 것이다. 해가 오래되어 戊申字補字가 많이 混用되고, 한글大·小字는 同계열의 것으로 마멸된 것과 補字가 적지 않게 混用되어 있다.



<그림 11> 숙종 30년(1704) 갑인자와 병용 한글자 「詩經諺解」
 (자료 : 천혜봉, 「한국서지학」. 2006. 552)

2.2.3 元宗 한글字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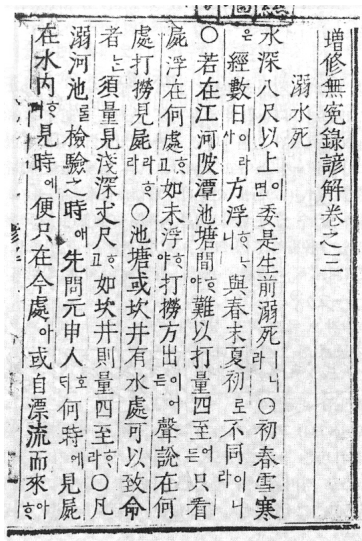
肅宗 19년(1693)에 인조의 아버지인 元宗(1580-1693)이 획을 가늘고 예리하게 쓴 독특한 글자체를 바탕으로 하여 각별하게 주조한 동활자를 元宗字라 하고 그 활자로 찍은 책을 원종자라 한다. 당시 국역문을 찍기위해 한글활자도 주성하였는데 이를 원종한글자라 한다. 이들 활자가 원종의 글씨체를 자본으로 하였음은 숙종의 어제어필발문에 “元宗大王御筆孟子諺解”의 표시가 있어서 알 수 있다. 「孟子諺解」는 肅宗 19년(1693)에 동으로 주조한 元宗字와 그 한글자로 찍었다. 글자체가 元宗의 예리한 글씨의 필력을 漢字와 한글에서 같이 볼 수 있다. 한글활자는 인서체에서 필서체로 바뀌는 특징을 잘 보여주는 동활자이다(그림 12 참조).



<그림 12> 숙종 19년(1693) 원종자와 그 한글자 「孟子諺解」
(자료 : 천혜봉, 「한국서지학」, 2006. 553)

2.2.4 後期校書館印書體字 병용 한글字本

後期校書館印書體字는 정확한 주조 연대가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上之三年 癸卯(경종3, 1723) 봄에 鐵字로 찍기 시작하여 140여일간을 거쳐 300부를 인성하였다”는 인출기록이 있는 南九萬의 「藥泉集」을 가장 먼저 찍은 인본으로 여겨 景宗 3년(1723)에 주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활자를 後期芸閣印書體字라 한다. 이 활자의 국역 인본에는 한글목활자가 쓰이고 있는데 이도 역시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으나 正祖 16년(1792)에 인출된 「增修無冤錄諺解」에는 後期芸閣印書體字와 한글활자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 後期芸閣印書體字는 가로획이 가늘고 세로획이 굵은 편인데 비해 한글목활자는 글자획이 정연하지 못하고 세로와 가로획이 다같이 가늘게 된 인서체이다(그림 13 참조).



<그림 13> 정조 16년(1792) 후기 교서관인서체자와 병용 한글자 「增修無冤錄諺解」
 (자료 : 천혜봉, 「한국서지학」. 2006. 555)

2.2.5 경서정음 한글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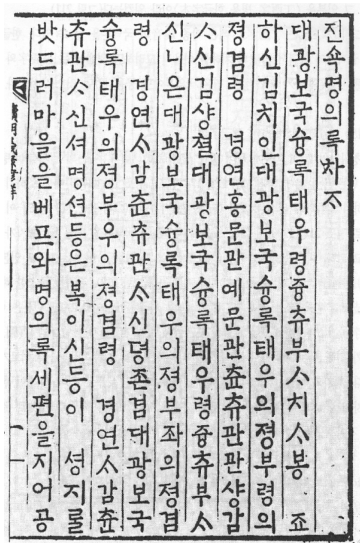
經書正音字는 李聖彬 등의 역관이 영조 10년(1734)에 사역원에서 「대학」, 「중용」, 「논어」, 「맹자」 등의 「사서」와 「서전」, 「시전」, 「춘추」 등 「三經」의 역학서 원문에 중국의 바른 음을 한글로 표기하여 이를 인출하고자 사비를 지출하여 만든 경서정음자와 한글활자이다. 이들 활자는 목활자이며 이 글자체는 갑인자를 닮은 유려한 晋體系의 필서체이다. 한글활자는 세로획이 좀 길쭉하며 글자체는 인서체에서 필서체로 옮겨가는 단계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남아 있는 현존본중 「詩傳正音」은 英祖 10년(1734)에 만든 經書正音字와 肅宗 1년(1675)에 「老乞大諺解」의 주음을 찍는데 쓰인 한글小字로 印出하였고, 「書傳正音」은 영조 10년(1734) 무렵에 경서정음자와 그 한글자로 인출하여 홍문관에 내사된 것이다(그림 14 참조).



<그림 14> 영조 10년(1734) 경서정음자 「書傳正音」
(자료 : 천혜봉, 「한국서지학」, 2006. 484)

2.2.6 壬辰字 병용 한글字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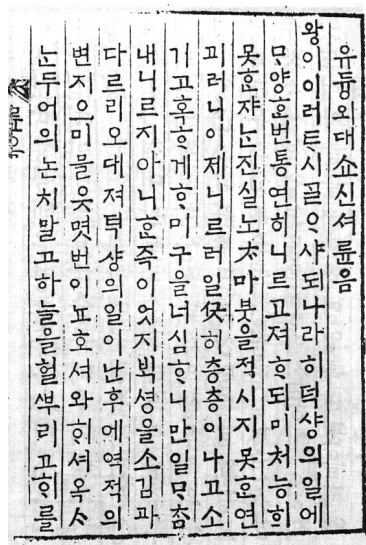
壬辰字는 영조 48년(1772)에 갑인자로 인출한 「心經」과 「萬病回春」을 바탕글자로 하여 주조한 15만자의 동활자를 일컫는다. 국역서에 쓰인 한글활자를 壬辰字 병용 한글字라 한다. 이 한글자는 정조원년에 인출한 「明義錄諺解」와 「續明義錄諺」에 사용되었다. 「속명의록」은 正祖 2년(1778)에 壬辰字의 병용한글大·小字로 찍어낸 續明義錄의 諺解이다. 한글활자에는 이전부터 사용해온 활자는 거의 볼 수 없고 새로 새긴 목활자가 대부분이다. 글자체는 인서체에서 필서체로 옮겨가는 단계의 특징이 보인다(그림 15 참조).



<그림 15> 정조 2년(1778) 임진자와 병용 한글자 「續明義錄諺解」
 (자료 : 천혜봉, 「한국서지학」, 2006. 557)

2.2.7 丁酉字 병용 한글字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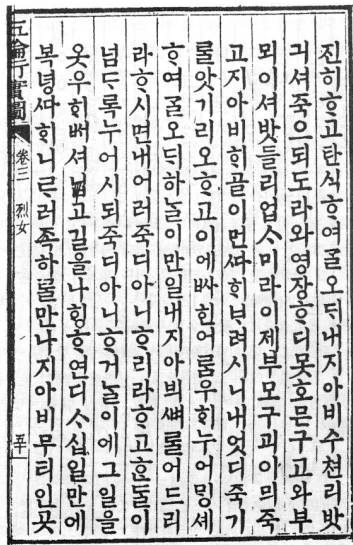
丁酉字는 정조 1년(1777)에 평양감사인 徐命膺에게 명하여 갑인자를 여섯번
 제로 개주하여 만든 15만 여자의 동활자를 정유자라 하고 국역서의 인출에 사용
 된 한글활자를 丁酉字 병용 한글字라 한다. 이 인본중에 한글활자가 병용된 것은
 각종 윤음의 국역본을 들 수 있다. 「유등외대소신서륜음」은 정조 6년(1782)에
 정유자와 한글자가 병용되어 인출되었다. 한글자체의 글자체와 국역서 인출의
 자체를 고려하면 임진자와 병용되었던 한글활자가 정유자로 인출한 국역본에도
 공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6 참조).



<그림 16> 정조 6년(1782) 정유자와 병용 한글자 「유등의대소신서류음」
(자료 : 천혜봉, 「한국서지학」, 2006. 559)

2.2.8 初鑄整理字 병용 한글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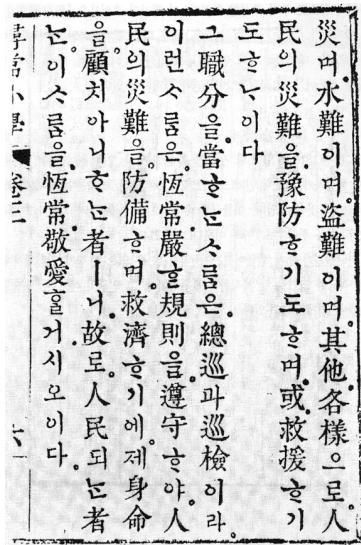
初鑄整理字는 「整理儀軌通編」을 찍기 위해 청의 「康熙字典」의 모양을 본떠 만든 생생자를 자본으로 하여 정조 19년(1795)에 주성하기 시작하여 정조 20년(1796)에 완성시킨 큰자 16만자와 작은자 14만자의 동활자가 정리자본이다. 큰활자는 글자체가 넓적하고 글자 획이 굵은 안서체인 것이 특징이며 작은 활자는 오늘날의 인서체자와 같이 정교하고 해정하다. 한글활자는 정조 21년(1797)에 인출한 「五倫行實圖」에 쓰이고 있는데 이는 목활자이며 글자체가 붓으로 쓴 것과 같이 부드러운 필서체로 된 것이 특징이다(그림 17 참조).



<그림 17> 정조 21년(1797) 초주정리자와 병용 한글자 「五倫行實圖諺解」
(자료 : 천혜봉, 「한국서지학」, 2006. 560)

2.2.9 再鑄整理字 병용 한글字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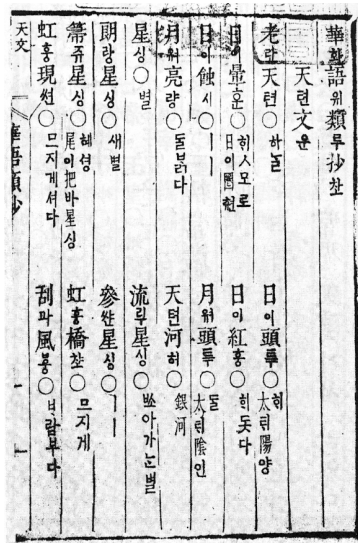
再鑄整理字는 初鑄整理字가 철종 8년(1857)에 주자소 화재로 불이나자 이를 바탕으로 철종 9년(1858)에 89,203자를 만들었다. 이 활자는 주조의 정교도가 초주보다 훨씬 많이 떨어지고 글자획에 박력이 없다. 이와 병행하여 국한문본에 인출에 사용된 한글활자가 再鑄整理字 병용 한글字이다. 이 한글활자는 언제 주조되었는지 기록이 전해지고 있지 않다. 학부편집국이 고종 32년(1895)에 교과서를 찍기 위해 學部印書體字와 그 한글자를 사용하였는데 활자가 정교하지 못하여 이듬해인 건양 1년(1896)에 재주정리자로 바꾸었을 때 이 한글활자가 처음으로 쓰였다. 이 초인본이 「新訂尋常小學」이며 활자체가 初鑄整理字 병용 한글字보다 더 필서체화되었다(그림 18 참조).



<그림 18> 건양 1년(1896) 재주정리자와 병용 한글 동활자 「新訂尋常小學」
(자료 : 천혜봉, 「한국서지학」, 2006. 561)

2.2.10 全史字 병용 한글字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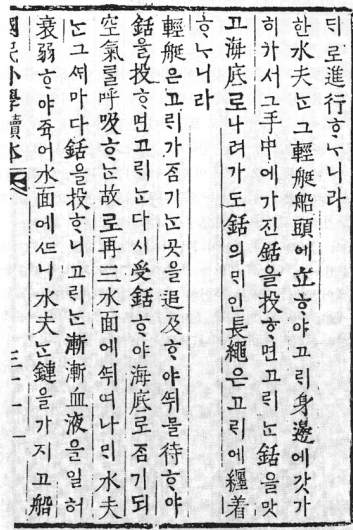
朴宗慶이 순조 16년(1816)에 청의 취진관 二十一史의 글자를 바탕으로 20만 자를 주성한 인서체 동활자가 全史字이며 제일 먼저 찍은 책이 「錦石集」이고, 이어 「潘南朴氏五世遺稿」를 비롯한 朴胤源의 「近齋集」과 「近齋禮說」이다. 이 활자는 박종경의 집에 그대로 두었다가 철종연간에는 이곳저곳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민간의 책을 찍어 주었다. 이 활자와 관련하여 철종 10년의 인출본인 「完山誌狀」에는 ‘大陵活人’이 표시되어 있고, 雲峴宮으로 몰수 되었을 때는 ‘雲峴宮活字’라는 별칭이 붙었으며, 대원군의 실각이후 대한제국 말기까지 개인의 편저서, 불교서, 도교서 등의 인출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이 활자에도 한글활자가 사용되었는데 全史字 병용 한글字이다. 이 한글자가 언제 제작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인본을 조사하여 보면 인서체자에 잘 어울리는 목활자이다. 그 인본의 예로는 「華音啓蒙諺解」를 들 수 있다(그림 19 참조).



<그림 19> 고종 연간 전사자와 그 병용 한글자 「華音啓蒙諺解」
(자료 : 천혜봉, 「한국서지학」, 2006. 563)

2.2.11 張混 한글字本

정조때 監印所의 司準이었던 張混(1759-1828)이 순조 10년(1810)에 사사로이 소형 목활자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張混字이다. 그 인본중 가자 빠른 것이 순조 10년(1810)에 인출한 「蒙諭篇」, 「近取篇」, 「唐律集英」이 있다. 이들 책에는 모두 “庚午(1810)活印”의 인기가 표시되어 있고 활자세김이 매우 정교하다. 초인본 중 「蒙諭篇」에는 한글활자가 쓰이고 있는데 이것이 張混 한글字이며 한글활자 역시 솜씨가 매우 정교한 나무 활자이다(그림 20 참조).



<그림 21> 고종 32년(1895) 학부인서체자와 그 한글자 「國民小學讀本」
(자료 : 천혜봉, 「한국서지학」, 2006. 565)

2.2.13 耶蘇三字經 한글字본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아동들에게 기독교 진리를 교육시키기 위해 「訓蒙三字經」의 체재를 본따서 한글 큰자는 나무활자로, 한글 작은자는 목활자 또는 신연활자로 찍었다. 이를 총칭하여 耶蘇三字經字라 한다. 이 활자로 찍은 「眞理便讀三字經」 중 1895년에 耶蘇敎書局이 찍은 것은 모두 목활자이고, 같은 해 耶蘇敎書會가 찍은 책부터는 신연활자로 대치되었다(그림 22 참조).



<그림 22> 고종 32년(1895) 야소삼자경자 「眞理便讀三字經」
(자료 : 천혜봉, 「한국서지학」. 2006. 525)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여 임진왜란 이후의 한글활자명, 한글활자 판본, 한글활자 종류, 한글활자 모양을 임란이전 판본을 <표 2>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 임진왜란 이후 한글활자명, 한글활자 판본, 한글활자 종류, 한글활자 모양

한글활자명	한글활자 판본 (간행연도)	한글활자 종류 (동활자/목활자)	한글활자 모양
訓練都監 한글字	「大學諺解」 (광해군 3년(1611))	한글 중간자 및 소자 (목활자)	필서체 (음해자체)
戊申字 병용 한글字戊申字 병용 한글字	「老乞大諺解」 (숙종 1년(1675))	한글 소자 (목활자)	필서체
戊申字 병용 한글字	「捷解新語」 (숙종 2년(1676))	한글 소자 (목활자)	필서체
戊申字 병용 한글字	「大學諺解」 (숙종 21년(1695))	한글 대자 및 소자 (목활자)	필서체
戊申字 병용 한글字	「大學栗谷先生諺解」 (영조 25년(1749))	한글 대자 및 소자 (목활자)	필서체
元宗 한글字	「孟子諺解」 (숙종 19년(1693))	한글 소자 (동활자)	필서체
後期校書館印書體字 병용 한글字	「增修無冤錄諺解家解」 (정조 16년(1792))	한글 중간자 및 소자 (목활자)	인서체
經書正音 한글字	「詩傳正音」, 「書傳正音」 (영조 10년(1461))	한글 소자 (목활자)	晉體系 필서체
壬辰字 병용 한글字	「속명의록」 (정조 2년(1541))	한글 중간자 (목활자)	필서체
丁酉字 병용 한글字	「유동외대소신서륜음」 (정조 6년(1782))	한글 중간자 (목활자)	필서체
初鑄整理字 병용 한글字	「五倫行實圖」 (정조21년(1798))	한글 중간자 (목활자)	부드러운 필서체
再鑄整理字 병용 한글字	「新訂尋常小學」 (건양 1년(1896))	한글 중간자 (동활자)	부드러운 필서체
全史字 병용 한글字	「華音啓蒙諺解」 (고종연간(1864~1896))	한글 소자 (목활자)	인서체
張混 한글字	「蒙諭篇」(순조 10년(1810))	한글 소자 (목활자)	인서체
學部 한글字	「小學讀本」 (고종 32년(1895))	한글 소자 (목활자)	필서체
耶蘇三字經 한글字	「眞理便讀三字經」 (고종 32년(1895))	한글 소자 (목활자)	인서체

3. 한글 활자 구조법의 기술적 발전

한글활자는 임진왜란 이전과 임란왜란 이후에 다양한 판본에 사용되었다. 임진왜란 이전에는 初鑄甲寅字 병용 한글字, 乙亥字 병용 한글자, 乙酉 한글자에 동활자가 사용되었고, 동국정운 한글자, 홍문정운자 한글자, 인경 한글자, 경서 한글자에는 목활자가 사용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한글활자판본에는 元宗이 정성 들여 쓴 글자를 각별히 주성한 元宗 한글字와 再鑄整理字 병용 한글字에 동활자가 사용되었고, 나머지 판본에는 모두 목활자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것은 활자구조법 및 조판기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동활자 구조법 및 조판기술

3.1.1 임진왜란 이전의 한글활자 구조법 및 조판기술

초주갑인자는 세종16년(1434)에 세종 2년(1420)에 만든 경자자의 글자체가 늘고 뻣뻣하여 보기가 어렵게 되자 좀 더 큰 활자를 만들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에 李葳의 감독하에 金墩, 金鑣, 蔣英實, 李世衡, 鄭陟, 李純之, 李義長 등이 일을 관장하여 그 해 7월 12일부터 두달 걸려 20여만자의 큰자와 작은자들을 만들어 냈다. 그 자본은 「孝順事實」, 「爲善陰鷲」 등으로 하고, 부족한 자는 진양대군 孫가 써서 보충하였다. 활자의 모양은 큰자와 작은자의 크기가 고르고 활자의 네모가 반듯하고 판판하며 길이를 길게 하여 밀랍을 사용하지 않고 인판에 심어 조립식으로 하고 활자면이 다소 낮으면 파지를 깔고 계선과의 빈틈이 생기면 竹木을 깎아 메우는 단계로 발전하였다. 하루의 인출량이 40여지에 이르렀다.⁵⁾ 初鑄甲寅字 병용 한글字 역시 함께 만들어져 사용되었으므로 구조와 조판

5) 金鑣, 甲寅字鑄字跋文. “宣德九年(世宗16, 1434) 秋七月 殿下謂知中樞院事臣李葳曰 卿所嘗監造鑄字 印本固爲金精好矣 第恨字體纖密 難於閱覽 更用大字本 重鑄之 尤佳也

법이 초주갑인자와 같은 것으로 판단된다.

을해자는 세조 원년(1455)에 강희안의 글씨를 자본으로 큰자, 중간자, 작은자를 만들어서 세조 3년(1457)에서 7년(1461)초까지의 사이에 「묘법연화경」, 「금강반야바라밀경」,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선종영가집」, 「친태사교의」 등을 인출하였다. 이후 세조 7년에 「수능엄경」과 「선종영가집」을 국역하여 완성시키고, 그 중 「능엄경언해」는 을해자의 대자, 중자, 소자와 병용한글자로 찍어서 인출하였다. 이들 을해자를 바탕으로 선조 21년(1588)에 개주하여 「孟子諺解」 등을 찍은 경서 한글자가 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남아 있는 활자중 30字는 을해자 병용 한글자를 바탕으로 개주한 경서 한글자로 여겨지는데 이들 활자의 뒷부분이 썩기형(역 V자형) 모양으로 된 것이 남아 있다. 이는 활자의 밑과 인판바닥이 판판하지 않아 기울어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활자의 뒷면을 썩기형으로 만들어서 접촉면을 줄이는 개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임진왜란때 빼앗아간 우리 동활자를 본보기로 하여 만든 일본의 駿河(스루가) 동활자가 이를 뒷받침해준다.⁶⁾

을유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世祖 11년(1465)에 鄭蘭宗의 글씨를 자본으로 하여 大·中·小字를 주성하고 원각경을 인출할 때 구결을 달기 위해 한글 활자를 함께 주성하였다. 이 활자는 자체가 부정하여 오래 사용되지는 않았다. 활자의 구조법 및 조판법은 을해자와 유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3.1.2 임진왜란 이후의 한글 활자 구조법 및 조판기술

임진왜란 이후의 한글활자중에서 동활자로 제작된 것은 元宗이 쓴 독특한 글자체로 각별하게 주성한 元宗 한글자와 판에서 주성한 재주정리자 병용 한글자본

仍命監其事 集賢殿直提學臣金墩, 直集賢殿臣金鑾, 護軍臣蔣英實, 僉知司譯院事臣李世衡, 議政府舍人臣鄭陟, 奉常主簿臣李純之, 訓練觀參軍臣李義長等掌之 出經筵所藏孝順事實·爲善陰鷲·論語等書 爲字本 其所不足 命晉陽大君臣琛書之 自其月十有二日始事 再閱月而所鑄 至二十有餘萬字 越九月初九日 始用以印書 一日所印可至四十餘紙 字體之明正 功課之易就 比舊爲倍矣 …”

6) 천혜봉, 『한국서지학』. 서울: 민음사, 2006. p. 315.

이다.

元宗字는 숙종 19년(1693)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이 쓴 글자를 바탕으로 만든 동활자이다. 인본으로는 「孟子大文」과 「孟子諺解」가 있다. 이와 병행하여 국역문을 인출하기 위해 사용된 활자가 元宗 한글자이다. 이때 주성된 원종자는 「板堂考」에 의하면 원종자가 5,594자이고, 원종 한글자가 4,605자라고 한다.⁷⁾ 이들 활자의 구조법은 자세하게 알 수는 없다. 다만,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전기교서관인서체자(숙종조 초, 1684년 이전)로 보이는 활자가 350여개, 후기교서관인서체(경종 3년, 1723 주조) 유형으로 보이는 활자가 약 650여개로 보고되고 있다. 이어 이들 활자중 뒷면이 터널형인 활자와 아주 특이한 유형중 뒷면이 평평한 활자와 췌기형(역V자형)의 활자가 섞여 있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⁸⁾ 이들 교서관 인서체자의 한문활자에는 전기와 후기의 활자가 섞여 있고, 한글활자는 목활자를 만들어 주용하였다. 이에 근거하면, 원종자와 원종 한글자는 그 시기로 보거나 한문활자와 한글자에 동활자를 함께 주성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때, 조선조 전기의 활자구조법에 근거하여 활자를 만들어서 조판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初鑄整理字는 철종 8년(1857)에 주자소 화재로 여러 종류의 다른 활자와 함께 소실되었다. 재주정리자는 초주정리자본을 바탕으로 철종 9년(1858)에 89,203자를 만들었다. 이 활자는 주조의 정교도가 초주보다 훨씬 많이 떨어지지만, 이와 병행하여 국한문본에 인출에 사용된 한글활자가 再鑄整理字 병용 한글자이다. 이 활자는 동활자이고 그 인본으로 「新訂尋常小學」이 남아 있다. 여기에 사용된 한글동활자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는 무신자 병용 한글활자가 일부 남아 있는데 이들 활자는 임진왜란 이전 한글활자에 보이는 사우평정형 또는 췌기형(역 V자형)이 아니고, 터널형이어서 주조방법이 다른 것으로 인식되었고, 이에 대한 실험적 연구도 이루어졌다. 이 터널형 활자는 무신자 병용 한글활자의 실물중에 일부 남아 있긴 하지만, 무신자 병용

7) 천혜봉, 『한국서지학』. 서울: 민음사, 2006. p. 386.

8) 이재정,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교서관인서체자의 분류 및 고증,” 「조선의 금속활자 校書館 印書體字」(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07), 256~284.

한글자 판본과 그 이후의 여러 판본에 실제 활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탐토는 다음 장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3.2 목활자 구조법

목활자의 구조는 원나라 王禎의 「農書」, 徐有榘의 「林園十六志」, 柳鐸一의 「韓國木活字印刷術」과 千惠鳳의 「韓國典籍印刷史」를 참조하면 그 제작법의 일단을 알 수 있다.⁹⁾

우선 금속활자의 경우와 같이 글자본을 정하고, 글씨를 잘 쓰는 이가 활자의 크고 작은 규격에 맞추어 글자를 썬다. 같은 글자는 몇번씩 중복되게 쓰고 어조사 등의 활자는 필요한 만큼 수량을 준비한다. 활자에 사용될 나무는 黃楊木이외에 박달나무, 뽕배나무, 자작나무, 산벚나무, 감나무, 배나무, 고얌나무, 모과나무, 대추나무를 사용한다. 각 나무는 활자를 새기기 좋게 판목을 켜고 연판과정을 거쳐 판면을 고르게 한다. 깨끗이 쓴 글씨를 판목에 뒤집어 붙이고 말린 다음 불룩 새김을 한다. 한 판목에 글씨를 다 새기면 그 글자체는 뒤집어진 모양이 되며 잘라낸 활자는 작은칼로 네면을 다음어 가지런하게 하고 높이가 일정하도록 손질을 한다. 완성된 활자는 배열법에 따라 보관함에 정돈한다. 조선조 한글활자에 사용된 판짜기는 동활자와 마찬가지로 조립식과 고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관서에서는 주로 조립식에 의거하였고, 민간에서는 고착식도 활용되었다.

한글활자에 사용된 목활자는 동활자와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발전되었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에 한문활자에는 동활자의 구조가 다양하게 실험되어 발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글 활자에 목활자가 주용되었다.

9) 王禎, 「農書」卷 22 卷末 附錄; 徐有榘의 「林園十六志」, 105 怡雲志 卷 第6 圖書藏訪下 鉸印 木刻活字法 및 聚珍板式; 柳鐸一, “韓國木活字印刷術에 對하여,” 民族文化論叢, 嶺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제4집(1983), 111-125.; 千惠鳳, 「韓國典籍印刷史」(서울: 汎友社, 1990), 364-367.

4. 현존 한글活字와 터널형 한글活字의 활용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남아 있는 한글 활자는 언문자대자로 명명된 활자 232자, 금속제 언문소자로 명명된 활자 520자로 총 752자이다. 국립중앙박물관 보고서와 관련 논문에 의하면, 그중 30자는 세조 7년(1461)에 인출된 「능엄경언해」와 성종 12년(1481)에 간행된 「두시언해」를 사용할 때 찍은 한글 활자로 추정했고, 남은 720여 활자의 대부분은 현종 9년(1668)에 제작하여 영조 48년(1772)에 임진자가 제작되기 이전까지 사용된 무신자 병용 한글활자로 확인되었고, 이들 활자가 임진자와 정유자의 언해본에도 목활자와 함께 주용되었다고 하였다.¹⁰⁾

현재 남아 있는 무신자 병용 한글활자를 보면 이는 임진왜란 이전에 주조된 한글활자와는 달리 활자 뒷면이 터널형으로 되어 있다. 이들 활자의 주조법에 관한 실험적 연구가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의 일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¹¹⁾

“무신자 병용 한글활자중 ‘둘’ 활자의 주성은 세로×가로×높이가 각각 1.4×1.6×0.4cm의 목각 육면체의 윗면에 글자가 새겨진 上部부분과, 이와 비슷한 높이(0.4cm)의 터널형으로 조성된 下部의 목각 부분이 상·하로 重疊된 父字 즉, 상하분리형父字(목활자)의 형태가 암·수 주형틀 속의 주물사 속에서 각각 형성된 字迹 즉 母字로 조성된 상태에서, 쇳물이 부어진 후 주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 활자의 주성은, 상하분리형父字의 상부가 하부보다 약간 크다. 그리고 하부의 터널형父字는 주물사가 다져지는 과정에서 남동방향으로 약 10도 정도 기울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상·하부가 어긋난 상태에서 母字가 결합되면서 주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활자를 완성시키는 研磨 단계에서, 그 오른쪽 터널형의 다리(밑 부분) 부분의 많은 부분이 탈락되어, 결국 그 오른쪽 하부는 극히 일부만 잔존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小字 인 ‘류’자와 ‘박’자 에서도 대자와 같이 실패한 활자의 모습이 그대로

10) 이재정,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한글 금속활자의 특징,” 한글금속활자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06), 236.

11) 김성수, “조선후기의 금속활자 주조방법에 관한 고찰,” 『서지학회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08), 8-9.

드러나고 있다. 이 논문발표집에 소개된 사진도판을 인용하여 위의 인용문에 설명된 ‘둘’ 대자와 ‘류’자와 ‘박’자 소자의 대비 모습을 대비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¹²⁾ (그림 23 참조).



<그림 23> 무신자 병용 한글활자 중 ‘둘’ 대자와 ‘류’자와 ‘박’자 소자의 대비

위의 인용문과 사진을 참조하면, 무신자 병용 한글활자에서 터널형 활자의 주성이 시도된 것은 분명하다. 이들 활자의 주성방법에 대한 논의는 예외로 하더라도, 터널형 무신자 병용 한글 활자의 주성은 실험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 주성 방법은 임진왜란 이후의 임진자, 한구자 등의 한문활자에는 영향을 주어 터널형 활자를 주성하는 기술적 발전을 가져왔다. 이러한 터널형 한문활자가 일반화된 이후에도 한글활자에는 목활자가 주용되었고, 한글활자에 그 주성방법과 기술이 응용된 것은 숙종 19년(1693)에 종진의 주조방법으로 만든

12) 김성수, “조선후기의 금속활자 주조방법에 관한 고찰,” 『서지학회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08), 8-9.

원종한글자를 제외하고, 再鑄整理字 병용 한글자에 와서야 가능했다는 것을 판본을 통해 알 수 있다.

5. 結 論

朝鮮朝 한글活字 版本을 통해 본 活字鑄造法의 技術的 發展에 관해 考察한 바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조 한글활자 판본에 대해 종합하면, 조선조 한글활자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 많은 판본에 한문활자와 병용되면서 발전되어 왔다. 임진왜란 이전의 한글 판본중 동활자는 初鑄甲寅字 병용 한글字, 乙亥字 병용 한글字, 乙酉 한글字에 사용되었다. 세종 29년(1448)에 「月印千江之曲」을 인출할 때 사용된 初鑄甲寅字 병용 한글字는 글자모양이 균정하고 등근 획의 모양이 가지런하며 동일 글자가 어느 것이나 같다. 乙亥字 병용 한글字는 세조 7년(1461)에 「楞嚴經諺解」를 인출하면서 한문의 대·중·소자와 함께 사용되었으며 글자체가 초기의 강직한 인서체에서 부드러운 필서체로 옮겨가는 특징을 보여준다. 中宗 36년(1541) 11월에 인출한 「簡易辟瘟方」에는 을해자 한글 대자에 목활자가 사용되었는데 필서체이다. 乙酉 한글字는 世祖 11년(1465)에 「圓覺經」을 인출하면서 구결을 달기 위해 주성되었는데 글자체는 刊經都監 諺解本의 영향을 받아 세필 印書體화된 것이 특징이다. 목활자가 사용된 것은 東國正韻 한글字本, 洪武正韻字 한글字本, 印經 한글字本, 經書 한글字本인데, 동국정운 한글자만 인서체이고 나머지는 모두 필서체이다

임진왜란 이후의 한글 판본중에는 元宗이 정성들여 쓴 글자를 정성들여 각별히 주성한 元宗 한글字와 再鑄整理字 병용 한글字에만 동활자가 사용되었는데 필서체이다. 목활자는 다양한 활자에 응용되었는데, 訓練都監 한글字, 戊申字 병용 한글字, 元宗 한글字, 經書正音 한글字, 壬辰字 병용 한글字, 丁酉字 병용 한글字, 初鑄整理字 병용 한글字, 學部 한글字本에 사용된 것은 자체가 필서체이

고, 後期校書館印書體字 병용 한글字, 全史字 병용 한글字, 張混 한글字本, 耶蘇三字經 한글字에 사용된 것은 인서체이다.

둘째, 활자구조법의 기술적 발전을 종합하면, 初鑄甲寅字 병용 한글字에는 초주갑인자와 같이 四隅平正의 활자모양에 조립식 조판법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乙亥字 병용 한글字를 바탕으로 재주한 경서한글자에는 활자의 뒷모양이 썸기형(역 V자형)인 활자가 일부 실험되어 사용되었고, 을유자는 을해자와 유사한 기술이 적용되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임진왜란 이후의 원종한글자는 조선조 전기의 활자구조법에 의해 활자를 만들어 조판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再鑄整理字 병용 한글字는 터널형의 활자로 주성되었다. 터널형의 활자는 戊申字 병용 한글字에 응용되었지만 그 이후에 사용되지 않다가 관용활자인 再鑄整理字 병용 한글字에 와서 일반화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목활자는 임진왜란 이전의 여러 한글활자에 사용되었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필서체 및 인서체의 한글활자에 다각도로 활용되었다.

셋째, 현존 한글活字와 터널형 한글活字의 활용을 종합하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남아 있는 한글 활자는 750여자이다. 그중 30자는 을해자를 바탕으로 임진왜란 직전인 선조 21년(1588)에 개주한 경서한글자로 여겨지고, 남은 720여 활자의 대부분은 무신자 병용 한글활자로 확인되었다. 이는 임진왜란 이전에 주조된 한글활자와는 달리 활자 뒷면이 터널형으로 되어 있다. 무신자 병용 한글활자에서 시도된 터널형 활자는 실험에 실패하여 판본에 활용되지 못하였다. 그 주성방법과 기술은 조선조 후기의 임진자와 정유자를 비롯한 여러 한문활자에 응용되었고, 한글활자에서는 재주정리자 병용 한글자에 활용된 것임을 밝혔다.

추후과제로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글활자중 을해자를 바탕으로 임진왜란 직전인 선조 21년(1588)에 개주한 경서한글자로 여겨지는 30자에 대해서는 실물과 판본상에 나타나는 글자의 자모꼴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실증적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국립중앙박물관. 「한글금속활자」.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06.
-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의 금속활자 校書館印書體字」.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07.
- 국립중앙박물관. 「금속활자에 담은 빛나는 한글」.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08. 金 鑲. 甲寅字鑄字跋文.
- 김성수. “임진자와 정유자의 복원을 위한 주조 및 조판 연구.” 「甲寅字와 한글활자: 2007 조선왕실 금속활자 복원사업 결과보고서」.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7. 372-411.
- 김성수. “조선후기의 금속활자 주조방법에 관한 고찰.” 서지학회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08. 1-20.
- 남권희. “주물사주조법에 의한 금속활자 주조방법 연구.” 금속활자 주조 및 인쇄 기술사 복원 연구 결과보고서,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6. 46-84.
- 남권희. “조선시대 금속활자 주조와 조판에 관한 연구.” 「甲寅字와 한글활자: 2007 조선왕실 금속활자 복원사업 결과보고서」.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7. 15-186.
- 박문열. “무오·무신자관의 복원에 관한 실험적 연구.” 「甲寅字와 한글활자: 2007 조선왕실 금속활자 복원사업 결과보고서」.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7. 187-371.
- 徐有榘. 「林園十六志」 105, 「怡雲志」 卷 第6.
- 육영정. “한글 금속활자 복원을 위한 주조 및 조판 연구.” 「甲寅字와 한글활자: 2007 조선왕실 금속활자 복원사업 결과보고서」.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7. 412-444.
- 王 禎. 「農書」. 卷 22
- 柳鐸一. “韓國木活字印刷術에 對하여.” 「民族文化論叢」 第4輯, 嶺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1983, 111-125.

- 윤용현. “조선왕실 주조 금속활자 복원활자의 과학 분석.” 「甲寅字와 한글활자: 2007 조선왕실 금속활자 복원사업 결과보고서」.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7. 445-464.
- 이재정.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한글 금속활자의 특징.” 「한글금속활자」.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06. 236-251.
- 이재정.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교서관인서체자의 분류 및 고증.” 「조선의 금속활자 校書館印書體字」.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07. 256-273.
- 천혜봉. “甲寅字 鑑識의 諸問題.” 「창사 이춘희 교수 정년기념 논총 (1993). 19-47.
- 천혜봉. 「한국금속활자본」. 서울: 범우사, 1993.
- 천혜봉. 「한국목활자본」. 서울: 범우사, 1993.
- 천혜봉. 「한국서지학」. 서울: 민음사, 2006.
- 千惠鳳.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汎友社, 1990.
- 청주고인쇄박물관. 「금속활자 주조 및 인쇄기술사 복원 연구 결과보고서」.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6.
- 청주고인쇄박물관. 「甲寅字와 한글활자: 2007 조선왕실 금속활자 복원사업 결과 보고서」.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7.